

2017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인문계열 B형)

(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은 잘못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 만약 내가 어떤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나 대신 줄을 서게 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별 문제 없다고 한다. 또한 내가 구매한 입장권을 사용하는 대신 누군가에게 팔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125달러를 내고 타인을 고용해 줄을 세운 사람은 직접 줄을 서지 않고도 셰익스피어 연극을 관람할 수 있으므로 분명히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애당초 타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선 대가로 125달러를 번 사람도 행복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하고 사회적 효용은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시장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재화를 할당한다. 이때 가치 기준은 돈을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로 가능하다.

(나) 친구들과 중국 음식점을 찾은 날, 자장면과 짬뽕 가운데 뭘 고를지 잠시 고민을 하다 한 가지 음식을 결정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나서서 “우리 탕수육도 한 접시 주문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여기저기서 “좋아, 좋아.” 소리가 터져 나오고, 탕수육 한 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렇게 주문한 음식들이 모두 나오면, 이때부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바로 약속이나 한 듯이 탕수육을 먼저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탁자 위를 살펴보면, 탕수육 접시는 깨끗이 비워져 있고 다들 각자 주문한 자장면이나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다. (….)

그렇다면 왜 탕수육과 자장면을 먹을 때 대부분 탕수육이 먼저 사라지는 걸까? 탕수육이 자장면보다 더 맛있어서? 아니면 탕수육이 더 비싼 음식이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두가 함께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자장면이나 짬뽕은 내 몫이 정해져 있지만 탕수육은 내 몫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몫의 자장면보다는 모두의 음식인 탕수육이 먼저 없어지는 것이다. (….) 이처럼 소유권이 명확한 자원과 불명확한 자원이 섞여 있을 때 소유권이 불명확한 자원이 훨씬 빨리 고갈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게임과 실험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실험이 ‘최후통첩 실험’이다.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자. 실험자는 실험 대상으로 나선 민수와 영희 둘 중의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준다. 만약 민수에게 돈을 주었다면 민수가 그 돈을 영희와 얼마씩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제안을 영희에게 제시하게 한다. 민수의 제안을 영희가 받아들이면 공동 10,000원은 서로 나눠가져도 좋지만 만약 영희가 이를 거부한다면 돈은 다시 몰수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자신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영희는 민수의 제안을 거부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단돈 100원이라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제안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게임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평균적으로 배분 몫이 7대 3이 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아예 그 돈을 포기했던 것이다.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단돈 100원이라도 받으면 이득이 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악으로 대하는 특징을 보이는 인간을 가리켜 호모 리시프로칸, ‘호혜적 인간’이라 부른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특성으로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악한 행위에 대해 보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서로 협조하여 전체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라)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설산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오는 세계의 여행자들 덕분에 네팔의 경제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여행자 한 사람의 따뜻한 샤워를 위해 빨강으로 세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숲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 공정 여행은 편안한 여행의 대가로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이다. 여행자가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정 여행 운동가들은 자연을 파괴할 수 있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여행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다. 조개, 모피, 새의 깃털로 만든 상품 등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로 만든 기념품을 사지 않는 것도 공정 여행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공정 여행가들은 여행 수입을 위해 문화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일에 반대한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는 낯익 고리를 찬 여성들로 유명한 카렌 족 마을이 있다. 수많은 관광객들은 이 부족의 진기한 모습과 마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기념품을 구입한다. 그러나 카렌 족 마을 이장은 인터뷰에서 “(…) 우리들의 전통문화는 이미 상품이자 구경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표정하게 긴 목을 늘어뜨리고 있는 저 여인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 공정 여행은 문화의 존중을 강조한다. (….)

공정 여행은 여행자와 그들을 맞이하는 이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상생의 여행이다. 공정 여행은 공정 무역으로서의 여행의 형태이지만, 그 대상이 초콜릿이나 신발과 같은 상품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 그리고 삶에 관한 문제인 만큼, 더 넓은 의미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제시문 (가)~(라)를 각각 요약하고, 이 제시문들을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의 관점을 기술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0점 처리됨**)
2. 위에서 분류한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그 관점의 제시문을 각각 논거로 활용해 다른 관점의 제시문을 모두 비판하시오. (400점, 1,100~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0점 처리됨**)

2017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기준표(인문계열 B형)

출제 의도

<문항 1>은 (가)~(라)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고, 제시된 관점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이다. 이 문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독서 능력과 사고 능력, 작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제시문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이해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문자 기호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전언을 이해하는 독해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글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며,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국어 I>, <국어 II>, <작문> 등)에 포함되는 능력이다. 그리고 제시문들을 주어진 관점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 특정 관점으로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능력, 분석적 사고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 또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국어 I>, <국어 II>)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맥락에 맞는 적절한 표현 능력을 측정한다.

<문항 2>는 <문항 1>에서 분류한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제시문 안에서 논거를 발견하여 다른 관점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이 문항 역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포함된 독서 능력과 사고 능력, 작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문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을 추론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독해 능력,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 독해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지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고등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모두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국어 I>, <국어 II>, <작문> 등)에 포함되는 능력들이다. 또한 이 문항은 논리적인 맥락에 따라 글을 구성할 수 있고 맥락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 또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국어 II>, <작문> 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II	윤여탁 외	미래엔	2014	204-211	제시문(가)	x
국어 I	우한용 외	비상교육	2014	196-202	제시문(나)	x
국어 II	문명진 외	창비	2014	208-213	제시문(다)	x
국어 II	김중신 외	교학사	2014	222-227	제시문(라)	x

2017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채점기준표(인문계열 B형)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40	200	600
	분석력	40		
	통합적 사고력	40		
	표현력	40		
	정서법	40		
2번 대문항	분석력	100	400	
	비판적 사고력	160		
	구성력	60		
	표현력	40		
	정서법	40		

2017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답안 예시(인문계열 B형)

1. 제시문 (가)~(라)를 각각 요약하고,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관점을 기술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제시문 (가)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나)는 소유권이 불명확한 공유 자원을 이기적인 개인들이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현상에 대해 말한다. (다)는 자원 분배 상황에서 선에는 선으로 대응하고 악에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응징하는 호혜적 인간에 대해 기술한다. (라)는 관광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공정 여행을 주장한다.

(가)와 (나)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경제 행위에서도 합리적 사고를 통해 최대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다)와 (라)는 인간을 호혜적 존재로 보고, 경제 행위에서도 전체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여 상호 협조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호모 리시프로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412자)

2. 위에서 분류한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관점의 제시문을 각각 논거로 활용하여 다른 관점의 제시문을 모두 비판하시오. (400점, 1,100~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0점 처리됨)

I. (가)(나) 선택 - (다)(라) 비판

인간은 이기적 본성을 지닌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실리적 행위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손해를 감수하고 전체의 공생을 모색하는 호혜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다)와,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공정 여행을 옹호하는 (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는 최후통첩 실험을 통해 인간이 호혜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실험은 (나)의 경우와 달리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호혜성을 입증할 수 없다. 최후통첩 실험은 '공유지의 비극'처럼 소유권이 불명확한 자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해당 자원을 선점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안하고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자원이 몰수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 추가 조건은 피험자가 불공정한 배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한 실리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므로, 만약 그러한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이해타산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경제 행위에서도 공생을 모색한다고 주장하는 (다)는 설득력이 없다.

(라)는 공정 여행이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 여행은 경제 행위를 통한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고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재화가 할당되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이득을 보고 행복해진다. 이같은 자유시장 거

래를 통해 재화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 그런데 (라)의 공정 여행은 자유시장 거래로 볼 수 없다. 공정 여행은 여행자가 일정한 경비를 지불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 어렵게 하므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정 여행은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재화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사회적 효용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기존의 여행 상품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자유시장 원리에 부합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다)의 최후통첩 실험은 인간이 호혜적 존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라)의 공정 여행은 인간의 경제 행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이기적 존재이며 모든 거래는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1,194자)

II. (다)(라) 선택 - (가)(나) 비판

인간은 경제 활동을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하고 타인의 이해나 사회 전체의 이득을 도외시한다면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모두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제 행위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공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는 대신 줄 세우기나 암표 거래 행위가 시장을 통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장 거래는 (라)에서 말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돈이 있는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도 편안하게 연극을 관람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남 대신 줄을 설 수는 있어도 연극을 관람할 수는 없다. 또한 암표는 입장권의 가격을 상승시켜 가난한 이들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는 인간의 삶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으나, 사회관계, 문화, 환경, 인간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신 줄 세우기나 암표 거래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를 성장시키는 상생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나)는 소유권이 불명확한 공유 자원의 경우에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기려는 사람들의 이기적 성향 때문에 훨씬 빨리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인간은 이기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에서 보여주듯이 타인이 지나친 이득을 챙기지 못하게 경계하거나 응징하는 호혜적 성향을 발휘하기도 한다. 무법적 경쟁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상호 견제나 일정한 규칙의 제정을 통해 공정성을 도모한다. 탕수육을 함께 먹는 경우도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에서 밝힌 인간의 호혜적 성향은 현실에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상황을 쉽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의 시장 거래를 통한 재화의 효율적 배분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며, (나)의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의 호혜적 성향 때문에 실제로는 발생하기 힘들다. 모두의 행복 증진과 사회적 효용의 증가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며, 개인의 경제적 이득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1,154자)